

전화의 날에 꽃피는 숭고한 사랑과 믿음

복잡다단한 인간생활의 주제들 가운데서 사랑을 누구나 단연 첫손가락에 꼽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다. 사랑만큼 아름답고 사랑처럼 열정적이며 사랑보다 뜨거운 것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하여 역사에는 사랑과 관련한 실로 무수한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왔다. 그 갈피 갈피에는 사랑의 힘에 받들려 장수가 된 이야기도 있

고 사랑 때문에 일어난 엄청난 규모의 전쟁이야기도 있으며 혈육간의 눈물겨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이야기들도 인간의 가장 아름답고 고결한 사랑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으로는 되지 못한다.

과연 어떤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인가.

이제 여기에 담겨 있을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 답을 하려고 한다.

진격하였다.

이렇게 그들의 진격은 고향과 가정을 향하여 일부러 따로 조직한 사연길은 길이었다.

죽었다던 아들과 남편, 형님과 오빠들이 살아서 돌아온 틈틈한 모습을 본 가족들과 친척, 친우들은 눈이 뒤집힐 정도로 놀라 기뻐서 이 절경을 몰라하였다.

전쟁전보다 몰라볼 정도로 틈틈하게 달라진 의거용사들을 만나본 동네사람들은 우리 겨레가 안겨줄 품은 오직 김일성장군님밖에 없다는 것을 가슴깊이 느끼며 너도나도 의용군에 탄원해나오셔서 대대가 순간에 편대로 편성되는 가슴 벅찬 현실을 펼쳐놓았다.

그런데 강태무만은 자기 가족을 만나지 못하였다.

강태무대대의 의거에 당황조란 작들이 강태무 안해의 행처를 탐문하느라 기를 쓰면서 그의 사진과 함께 15만 원의 현상금을 건 광고까지 게시하였기에 안해는 그 마수를 피하여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강태무는 서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으나 가족을 찾는 일을 뒤로 미루고 전선으로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이 사실을 아시고 못내 마음 써오신 어버이수령님이시었다.

하기에 서울이 해방되자 수령님께서 그런 사랑의 특별명령을 내리셨던 것이다.



강태무는 일흔이 넘은 나이에 도 군복을 입고 강사로 사업하였다.

특별 명령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등 무의 가족을 꼭 찾아내시오. 그리고 그 결과를 나에게 보고 하시오.》

이것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대가 침략세력의 불의의 무력침공을 짓부시고 있을 갈피 남으로 진격하고 있던 어느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전선경비사령부의 책임일군에게 내리신 공식적인 특별명령이다.

《특별명령의 당사자는 대대장 장병전원을 이끌고 공화국에 의거입북한 이전 남조선군 대대장 강태무였다.

어떻게 되어 그런 사랑의 특별명령이 내려지게 되었는가, 여기에는 이런 사연이 있었다.

전쟁이 발발한 후 남조선의 출천과 흥천지방에서는 이런 피이한 일이 있었다. 수많은 집집마다에서 사람들이 일시에 며칠동안 신신도 없이 이름 석자알에 재상을 차려놓고 목숨을 타치는가 하면 땅을 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있었던 것이다.

제사를 지내는 그들은 모두 1949년 5월에 공화국북반부로 의거한 강태무, 표무원 소속대대장 장병들의 가족, 친척들이었다.

인민군대의 질풍같은 반공격에 겁을 먹은 리승만도당은 공화국북반부로 의거한 2개 대대의 장병들 모두가 《빨갱이》들의 손에 무참히

살해되었다는 거짓선전과 함께 가족들을 위로한다느니, 그 무슨 전사자가족대우를 한다느니 하는 피이한 연극까지 놀았던 것이다.

결국 그 끔찍한 소문을 곧이듣고 의거장병들의 가족, 친척들은 말 그대로 울음바다를 펼쳐놓았던 것이다.

그러면 강태무, 표무원 소속대대장 장병들은 복원에 자립하는 어느 한 군사학교에서 인민군대의 정규교육을 받고 전선으로 나갈 준비를 갖추고있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이북 《빨갱이》들이 의거한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리승만도당의 거짓선전을 듣고 제사를 지내 부모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번엔 의거한 사람들이 경비대결장을 단 군복을 입고가면 가족, 친척, 친우들과 그곳 인민들은 기뻐하는 반면에 농들의 기만선전은 백일하에 드러날것이며 가족, 친척, 친우들을 만난 그들은 적들과 용감하게 싸울것이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셨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따라 의거입북한 전 남조선군 6보병사단 8련대 1대대(대대장 표무원)는 조선인민경비대 제7경비대대가 되어 강원도(남) 출천으로 그리고 전 남조선군 8련대 2대대(대대장 강태무)는 제8경비대대로 편성되어 강원도(남) 흥천으로

감격적인 상봉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리신 특별명령을 받아안고 전선경비사령부 군관들이 펼쳐나 전화와 편지 그리고 인편으로 그 소문이 강태무의 안해에게도 닿게 되어 피신생활을 마친 박인숙은 한달음으로 전선경비사령부를 찾아가게 되었다.

전선경비사령관으로부터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못내 기뻐하시었다.

그이의 따뜻한 사랑과 은정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먼저 안전한 곳에 집을 주고 아무리 전선정황이 긴급하다 하더라도 전선에 나가 있는 강태무에게 연락하여 그가 서울에 들어와 가족들과 며칠간 즐겁게 휴식하도록 할데 대한 문제, 강태무의 가족을 인차 안전한 지대인 평양에 소개하여 살게 할데 대한 문제, 적들의 눈을 피해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한 강태무의 안해를 자동차와 사람을 보내어 사고 없이 데려오도록 할데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신 수령님이시

었다.

참으로 육친의 사랑보다 더 뜨겁고 크나큰 은정이었다.

이렇게 되어 강태무는 불라는 전호가를 떠나 서울로 올라와 가족들과 감격적인 상봉을 하게 되었다. 그 후 강태무의 가족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대로 월미도방위자들이 마지막전을 벌리던 그 엄숙한 시각에 호송관들의 인솔하에 무사히 평양에 도착하였으며 다시 더 안전한 후방으로 들어가 아무런 불편없이 지내게 되었다.

정녕 세계전쟁사에 다시없는 사랑의 이야기이다.

그 사랑, 그 믿음에 있었기에 강태무와 표무원은 전화의 가렬한 불길속에서 더욱 굳 단련되고 세련된 조선인민군관으로 성장하였으며 전후에도 군력강화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정력과 재능을 다 바쳤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쟁이 승리한 후 28살밖에 안되는 강태무, 표무원에게 조선인민군 소장의 군사칭호를 수여하도록 하시었다.

세월은 많이 흘렸어도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제85(1996)년 5월 어느날 어버이수령님의 집견을 받은 공화국영웅들과 모범전투원들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강사로 내세워 그들이 자기가 직접 체험한 역사적사실들을 사적물이나 사진을 가지고 교양한편 좋은 것이라도 하시면서 일군들에게 강태무와 표무원에 대하여 참으로 가슴뜨거운 교시를 하시었다.

그들은 남조선에서 대대장까지 하였지만 진심으로 수령님을 존경하고 흠모하였으며 공화국북반부에 세워진 인민민주주의제도를 동경하였기때문에 1949년 5월 자기 대대장 장병들을 데리고 공화국북반부로 의거입북하였다. 그때 그들을 환영하는

사업을 평창히 하였다. 그들의 의거입북은 새 조선을 건설하는 우리 인민들에게는 커다란 고무로 되었다. 그 후 그들은 인민군대에 편입되어 조국해방전쟁에 참가하였으며 적들과의 싸움도 잘하였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계속하여 그들은 인민군대에 있을 때 소장의 군사칭호를 달고있었으므로 복대시할 때에는 중장의 군사칭호를 수여하고 승용차를 주어야 하겠다고 교시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끝없는 사랑과 믿음속에서 강태무와 표무원은 영예의 김일성총장수훈자로, 조국통일상수상자로, 공화국영웅으로 자라나게 되었다.

오늘 그들은 신미리에국립사원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고있다.

영생의 언덕에 서있는 그들은 지금도 후대들에게 이렇게 말하고있다.

《어떤 것이 가장 뜨겁고 아름다우며 공명한 사랑인가. 그것은 동지애를 친목으로 지니시고 그 한사람한 사람을 위해 모든것을 다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이다!》

본사기자 리연선

주제38(1949)년 5월 초순 강태무, 표무원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이들의 의거한 장병들을 태운 열차가 평양을 향하여 달려가던 그 시각 녀사께서는 밤을 새워가시며 손수 진달래꽃다발을 마련하시었다.

고 녀성들은 닭을 잡고 떡을 쳐가지고나와 그들을 대접하였다.

진달래꽃다발에 비낀 녀사의 소원

의거한 장병들을 태운 열차가 평양을 향하여 달려가던 그 시각 녀사께서는 밤을 새워가시며 손수 진달래꽃다발을 마련하시었다.

진달래, 간고한 항일혁명의 그날로부터 언제나 못잊어 마음속에 피우고피워오신 아름다운 진달래는 녀사께서 정다운 조국의 상징이었다.

하기에 녀사께서는 많고많은 꽃들중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흠모하여, 공화국북반부에 세워진 인민민주주의제도를 동경하여 찾아오는 그들에게 뜻이 깊은 진달래꽃다발을 안겨주실 생각을 하게 되시었던 것이다.

이렇게 되어 평양에도 착한 표무원, 강태무대대장과 병사들은 진달래꽃다발을 가슴 한가득 받아안게 되었다.

행사가 끝난 후 맥으로 돌아오시며 녀사께서는 말씀하시었다.

통일의 그날이 어서 빨리 와서 장군님을 모시고 조국통일을 경축하는 행사를 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참으로 녀사께서 조국을 통일하고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는것보다 더 간절한 소원은 없으시었다.

본사기자 김소담



대대를 이끌고 의거입북한 강태무는 평양에서 인민군대에 편입되고 공화국북반부에 세워진 인민민주주의제도를 동경하였기때문에 1949년 5월 자기 대대장 장병들을 데리고 공화국북반부로 의거입북하였다. 그때 그들을 환영하는 사업을 평창히 하였다. 그들의 의거입북은 새 조선을 건설하는 우리 인민들에게는 커다란 고무로 되었다. 그 후 그들은 인민군대에 편입되어 조국해방전쟁에 참가하였으며 적들과의 싸움도 잘하였다. ...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정신화

탁월한 사상리론의 저장

이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와 정당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위대한 지도사상을 가지고 자기가 선택한 길로 곧바로 나아가는 나라, 당은 오직 조선이고 조선로동당뿐이다.

탁월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주제101(2012)년 4월 6일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기》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절실적인 체계이며 주체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라고 밝혀주시었다.

김일성-김정일주의에 의하여 사회주의 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선 오늘 사회주의위업이 직면하고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사회주의적리상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리론이 확립되게 되었다. 현시대 인민들이 지녀야 할 세계관과 인생관으로부터 사회주의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과 정치방식, 근본리념에 이르기까지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한것으로 하여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앞당겨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공화국의 영원한 투쟁의 표대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대회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이며 인민을 하느님처럼 숭배하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사람이 바로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라고 하시면서 이를 당과 국가활동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시었다.

진정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사상리론활동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김일성-김정일주의는 공화국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되었으며 공화국의 인민들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따라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공화국이 전례없는 시련과 난관이 앞을 가로막고있지만 언제 한번 주저앉거나 물러서지 않고 사회주의건설을 줄기차게 다그쳐올수 있는것은 바로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삼고 투쟁하여왔기때문이다.

실지 공화국은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 밑에 오늘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의 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펼쳤다.

공화국의 70년행로에서 맞이한 가장 존엄높고 긍지높은 시대, 새로운 발전의 시대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진리성을 힘있게 과시하는 역사적사변으로 된다.

공화국인민들은 승리와 영광의 표인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삼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더 확신있게, 승리적으로 진척시켜나가고있다.

김용삼

세련된 성취예술, 찬란의 목소리 (1)

당대회준비에 만진한 3대리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지난 1월에 열린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그 어떤 요란한 구호를 내드는데보다도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 이 3가지 리념을 다시 깊이 새기는 것으로써 당 제8차대회의 구호를 대신하는것을 제기하시었다.

당대회구호를 대신한 이 3대리념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한평생 일관하게 견지해오신 정치리념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이어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의지가 어려있는 독특한 당대회구호를 놓고 세인은 부러움과 찬란의 목소리를 높였다.

《애민지도자의 3대리념, 인민의 총복음을 부각시키다!》

군관들의 과시한 심야열병식

조선로동당창건 75돐과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기념열병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3돐 경축 일간 및 안전부력열병식 모 두가 관례를 깨뜨리고 자정이 넘은 시각에 진행되었다.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본 공화국의 황홀한 밤들이었다.

공화국의 막강한 군력과 령도자와 인민의 일심단결의 참모습이 만천하에 남김없이 과시되는 이밤들을 보면서 세인은 이 구호성으로 격찬과 찬란의 목소리를 터치었다.

《조선의 밤은 우리의 낮보다 더 밝고 황홀하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 뜨락에서는 평범한 각계층의 근로자들이 모여앉아 공화국창건기념일을 경축하는 성대한 연회를 가지었다.

교련의 녀방송원, 박사로부터 철부지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령도자를 환자리에 모시고 한식술처럼 둘러앉은 류다른 화석이었다.

이곳에서 평범한 근로자들이 령도자와 어울려 웃고 기뻐하는 이채로운 풍경은 공화국에서 령도자와 제일 가까이에서 사는 북반은 주인공들이 바로 인민임을 말해주는 감동있는 화석이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세인이 터친 목소리는 하나같았다.

《이런 나라의 인민으로 살고싶다!》

본사기자 리경월

함께 부르신 《동지애의 노래》

어느 해 겨울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현지지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조국에 체류하고있는 총련일군들과 제일조선인예술인들을 위하여 뜻깊은 연회를 마련해주시었다.

총련일군들과 예술단성원들이 어려움도 있고 맛있는 음식들을 드는 모습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자신께서는 총련일군들과 제일예술가들을 한전호속의 혁명전우로, 한식술로 품에 안고 있다고 하시면서 총련에서 일심단결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로 화제를 돌리시었다.

《총련도 조국과 같이 일심단결해야 합니다. 일심단결은 조국의 얼입니다. 조선의 모습도 일심단결이 되어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하늘보다 높은 믿음과 기대의 교시를 받아안은 총련일군들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여올랐다.

이어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자신께서는 총련의 모든 일군들과 동료들이 중앙지도부를 굳게 믿고 중앙의 지도를 잘 받들며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총련애국사업을 힘차게 전진시켜나가기를 바란다고 뜨거운 기대를 표명하시었다.

환희와 격정의 시간이 흘러 어느덧 새벽 1시가 되여올 때였다.

자리에서 일어난 한 총련일군이 위대한 장군님께 《동지애의 노래》를 함께 불러주셨으면 좋겠다고 청을 올리시는것이였다.

그이께서는 그의 외람된 소청을 나무람할 대신 환히 미소를 지으며 오늘 총련 헌분부위원장

들과 《동지애의 노래》를 같이 부르겠다고 하시면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하시었다.

이어 그이를 한가운데 모시고 총련일군들은 주락돌레에 둥글게 서서 《동지애의 노래》를 합창하였다. 서로서로 손을 맞잡기도 하고 어깨를 걸기도 하며 노래를 부르는 총련일군들의 얼굴마다에는 가는 길 험난하다 해도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애국위업의 한길을 걸까지 걸어갈 신념의 맹세가 불타오르고있었다.

노래가 끝나자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열광적으로 박수를 치는 연회참가자들에게 담례를 보내시며 자신께서는 총련일군들을 혁명동지로 굳게 믿는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었다.

본사기자



모두다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에로!

